

강이야기

1

River & Culture



정 해 옥 | (주)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 전무
/ 우리협회 역사문화특별위 위원장
(jhok88@dohwa.co.kr)

하천지명 유래 이야기 6

안성천 (安城川)

안성천(安城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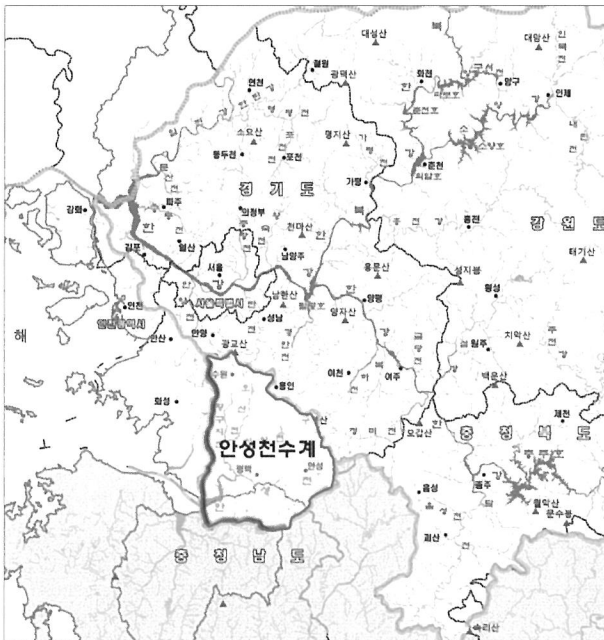
안성천은 안성 고을의 남쪽을 흘러 황구지천과 오산천을 합류하여 황해로 들어가는 큰 하천으로 지명에서 유래되었다. 안성은 삼국시대에 내해홀(奈兮忽)인데, 이는 '낮골-낮은 골'로서 저지대를 뜻하는 이름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안성맞춤'은 "안성에 유기를 주문하면 제대로 잘된 물건이 나

온다."는 뜻이다. 조선시대에는 안성 고을 남쪽을 흐른다고 하여 남천이라 하였고 또 시내의 아양동에서는 '아룽개'라고도 불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0권을 보면 '안성 南川 : 군 남쪽 2리 지점에 있다. 물의 근원이 둘인데 한 가닥은 백운산 북쪽에서 나오고 한 가닥은 남쪽에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918년에 간행된 「조선지리지료(朝鮮地誌資料)」에 의

하면 '안성천 : 수원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이며 하구는 경기도 진위군 현덕면과 충남 아산군 음봉면으로 길이는 76.2km이다.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이는 31.2km이며 경기도 진위군 병남면과 부용면까지 운항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두들기고개는 안성천과 남한강의 분수령이 되는 곳이다. 옛날 죽산 먹골에 사형장이 있을 때 안성과 양성고을 죄수들이 이 고개에 오르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므로 죄인들을 억지로 두들겨서 호송하였기에 두들기고개라 부른다고 한다. 유역에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아산시 사이의 아산만방조제와 아산호, 안성시의 안성맞춤박물관, 안성시 이죽면의 칠장산과 칠장사 등이 있다.



안성천 수계



그 외 명칭

▶ 남천 南川

조선시대에 경기도 안성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남천'은 대개 고을의 남쪽(앞쪽)을 흐르는 하천으로 지역에 따라 남대천이라고도 하는데, 『대동여지도』 등 여러 문헌에 나오는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안성)에 "남천은 군 남쪽 2리 지점에 있다. 물의 근원이 둘인데 한 가닥은 백운산 북쪽에서 나오고 한 가닥은 남쪽에서 나온다. 이것이 합류하여 양성현 흥경천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아롱개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 일대에서 부르던 현지명칭의 하나이다. 옛날 황해 바닷물이 안성시 바로 아래까지 들어왔는데, 이때 민물과 바닷물이 어우러지면 안개가 생겨서 항상 아침 모습이 아른거리게 보인다고하여 이곳의 안성천을 아롱개라 불렀다고 한다.

▶ 흥경천 弘慶川

『신증동국여지승람』(양성)에 "흥경천은 현 남쪽 35리에 있는 선원천과 안성군 남천 물이 합쳐지고, 서쪽으로 흘러

직산현 흥경원 북쪽에 와서 이 냇물이 된다. 또 수원부 오을미곶에 들어간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다. 이 지명은 안성천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한천과 만나 흐르는 하류를 지칭하는 부분칭으로 보인다. 🌐



『대동여지도』 (14천 5면) 안성천(남천) 일대